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순 서

□ 5분 자유발언 : 3명

- 신미정 의원 : AI 시대,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 김홍섭 의원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고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 표주숙 의원 : 거창 화강석 산업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 고 자 : 김홍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 결과 보고

- 상정안건 : 1건
- 보 고 자 :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건의문 채택의 건

- 상정안건 : 「거창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 제안설명 : 이흥희 의원



의 사 일 정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2. 22.(월)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p>【제3차 본회의】</p> <p>1. 2026년도 예산안</p> <p>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p> <p>3. 2025년도 의원 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p> <p>4.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p> <p>【산 회】</p>	<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 2</p> <p>※ 의회운영위원회 3</p>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 12. 22. 10:00)

5 분 자 유 발 언

AI 시대,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신 미 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 산업 현장의 로봇화, 교육과
의료의 디지털 전환까지 AI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 거창군의
정책 준비 속도는 느리진 않은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AI 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공급받는 초대형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만 장 이상’ 보다 5배나 높은 수치로, 현재 엔비디아의 AI칩은 전 세계 시장에서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대량으로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AI칩은 현재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의 AI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무료 AI’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소비쿠폰’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AI 시장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정책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AI 물결이 일게 될 것으로,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사회’를 넘어서, ‘AI 시대에 맞는 정책 구조로 전환하는 사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챗지피티 구독을 통해 AI를 시범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예측과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대상자 발굴이나 각종 지원사업 대상을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천하도록 한다면, 더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거창형 AI 농업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거창은 사과와 같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스마트팜, AI 병해충 진단 시스템, AI를 활용한 마케팅 및 신소득작물 육성 등을 도입하면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젊은 세대가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AI 윤리와 제도적 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은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등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런 변화를 미리 대비해 데이터 활용 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거창군도
“AI를 활용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AI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작은 농촌 지역이라도, 먼저 준비한 곳이 결국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거창군이 AI 전환의
선두주자가 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 12. 22. 10:00)

5 분 자 유 발 언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김 홍 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 지역구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연수를 다녀온 뒤,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다시 사람의
발길을 되찾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시 중심 상권은 침체되고 빈 점포는 늘어나며,
청년과 가족은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과 방치된 공간은 점점 더 많은 시민에게
‘머물 이유가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나가사키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핵심 사례가 마치부라 프로젝트입니다.

도심의 방치된 건물과 골목, 빈 점포를

‘지역의 보물’로 재해석하고, 주민·상인·행정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입니다. 거창하게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고쳤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작은 가게, 장인 공방, 로컬 카페, 예술 체험 공간,
골목 투어, 동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걷는 경험’으로 묶어 방문자 수와 체류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되찾았고, 골목 하나하나가 지역
경제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걸었고, 걷는
곳마다 소비가 발생했고, 소비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사가현 다케오 도서관입니다.
다케오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카페, 서점, 로컬 상점, 문화 프로그램, 야간 운영,

지역교육 연계, 디지털 정보 제공을 갖추어 도시의 지식·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방문은 10배 이상 늘었고, 지역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문화 활동과 지역 소비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즉, “도서관이 변하자 도시가 변했다.”는 사례입니다.

이 두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시의 회복은, 시설의 새로움이 아니라 ‘쓰임’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도심활성화 “마치부라형 로컬 스팟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빈 점포와 노후 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전수조사하여 로컬 창업·공방·체험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예술, 먹거리, 역사 콘텐츠를
“걷는 동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소규모 창업가·
청년·예술가의 참여를 위한 임대료 매칭 지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을 ‘머무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신축이 아니라, 부분 디자인과
시범운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서, 카페,
북스토어, 강연, 야간 운영, 청소년 스터디 공간,
어린이도서관 등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행사 및 지역 상권과 연동되는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민, 상인, 청년이 기획하고 행정
지원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방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즐겁게 머무는 도시, 배우고 느끼는 도시, 소비가
순환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는 건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머물고 싶은 곳에만
머뭍니다. 나가사키의 골목과 다케오의 도서관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방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안이 거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 12. 22. 10:00)

5 분 자 유 발 언

**거창 화강석 산업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표 주 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거창 경제의 허리를 지켜온
화강석 채석업계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거창 화강석 산업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합
니다” 입니다.

우리 군에는 18개 화강석 채석장이 허가돼 있고,
위천면·웅양면·주상면 일대는 일자리와 세수,
상권을 떠받쳐 온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채석업체인 위천면 모동 ‘A채석장’은
10월부터 임금 체불과 함께 가동을 중단했고,
주상면 연교리 ‘B채석장’도 올해 초부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들 사업장과 연계된 석재가공·운송·장비·음식업까지 감안하면, 이미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하는 원인은 자원 고갈과 신규 채석지 한계, 중국산 화강석·콘크리트 등 대체재 공세입니다.

양질의 채석이 어려워지자 생산량이 줄고, 그 빈틈을 저가 수입산이 채우고 있습니다.

일부 석산은 이미 레미콘 골재 생산으로 전환하며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거창 화강석 산업이 ‘사라진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속한 응급 조치입니다. 본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면 실태조사입니다. 집행부는 18개 채석장을 대상으로 가동 여부, 임금체불, 고용·세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의회·업계·노동계·전문가가 함께하는 ‘화강석 산업 비상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체불과 생계 위협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긴급복지·고용유지·긴급 경영자금 등을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을 살리려면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산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략입니다. 채굴 가능 물량과 환경·안전, 산지 복구 계획을 반영한 광구 재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국산 저가 석재와의 단순 가격 경쟁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브랜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시험·인증·기술 지원이
현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 화강석 채석업계의 위기는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거창 지역경제 전체에 켜진 경고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도 거창에서 화강석을 캐는 소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런 산업이 있었다” 라고만 기억될지가
결정됩니다.

거창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경제 기반을 물려
줄 것인지, 지금부터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을 촉구드리며,
군의회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도 정비와
정책 논의를 통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 2026년도 예산안

1. 심사경과	1
2. 세입예산안 대비표	1
3. 세출예산안 대비표	2
4. 심사결과	3
5. 변동조서	3
6. 조건부 승인조서	5

II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경과	6
2. 제안사유	6
3. 기금개요	6
4. 기금운용 변경계획	7
5. 질의 및 답변 요지	8
6. 토론 요지	8
7. 수정안 요지	9
8. 심사결과	9
9. 소수의견 요지	9
10. 기타 필요한 사항	9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제출자 : 2025. 11. 21.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4.

다.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12. 19. 상정·의결)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31,275,322	801,525,390	29,749,932	3.71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 계	790,695,787	771,767,930	18,927,857	2.45
	지 방 세 수 입	41,632,075	40,982,547	649,528	1.58
	세 외 수 입	33,980,030	27,223,043	6,756,987	24.82
	지 방 교 부 세	325,200,000	312,200,000	13,000,000	4.16
	조 정 교 부 금 등	26,650,000	28,200,000	△1,550,000	△5.50
	보 조 금	268,018,370	237,577,465	30,440,905	12.81
	보존수입등내부거래	95,215,312	125,584,875	△30,369,563	△24.1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0,579,535	29,757,460	10,822,075	36.37

3. 세출예산안 대비표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예 산 안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831,275,322	801,525,390	29,749,932	3.71
일 반 회 계	774,065,804	743,076,095	30,989,709	4.17
특 별 회 계	57,209,518	58,449,295	△1,239,777	△2.12
공 기 업	40,579,535	29,757,460	10,822,075	36.37
기 타	16,629,983	28,691,835	△12,061,852	△42.04

나. 위원회 및 회계별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31,275,322	801,525,390	29,749,932	3.71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 계	790,695,787	771,767,930	18,927,857	2.45
	의회운영위원회	1,333,896	1,251,197	82,699	6.61
	총 무 위 원 회	462,063,769	458,246,920	3,816,849	0.83
	산업건설위원회	327,298,122	312,269,813	15,028,309	4.8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0,579,535	29,757,460	10,822,075	36.37

3. 심사 결과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 가결
- 특별회계 : 원안 가결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21건에 대해 1,362,540천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 가결

4. 변동 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 책	단 위	세 부						
4개	계			9건	1,646,540	△1,362,540	284,000		
행정과	행정의효 율성강화	민관이함께 하는행정구 현	이통장등기초 행정지원	201-02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143,000	△30,000	113,000	예산과다	212
"	"	"	주민자치 활성화	307-04 (주민자치회한 마음체육대회)	26,840	△26,840	0	불요불급	217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활 동활성화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4 (거창프라임합 창단정기연주 회)	15,000	△5,000	10,000	예산과다	335
"	"	"	"	307-04 (연극작품제작 및공연극단입체)	10,000	△5,000	5,000	예산과다	336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 책	단 위	세 부						
"	"	"	문화예술행사 지원(보조)	307-04 (아시아1인극 제)	50,000	△20,000	30,000	예산과다	336
"	문화예술 도시육성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추진	201-03 (제2회명상·비 건축제)	50,000	△50,000	0	시기조정	341
관광 진흥과	관광진흥	관광시설 확충	관광지기본시 설관리	401-01 (거창읍상동 맥주거리경관 조명설치사업)	70,000	△70,000	0	불요불급	359
"	"	"	가조온천관광 지환경정비개 선사업	401-01 (가조온천관광 지환경정비개 선사업)	400,000	△400,000	0	공모사업 미선정	360
행복 나눔과	노인복지 증진	노인생활 지원	거창군고령친 화도시조성	207-01 (고령친화도시 조성연구용역)	30,000	△30,000	0	불요불급	410
안전총 괄과	재난안전 관리	재해 대비	소규모 재해해소	401-01 우기 및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66,000	△66,000	0	용역 불요	152
환경과	폐기물자 원화 및 청소관리	폐기물 자원화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시범사업		24,100	△24,100	0	실효성 재검토	225
"	자연환경(거창 창포원 활성화)	거창 창포원 활성화	관광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사업		300,000	△300,000	0	도비 미교부	243
도시건 축과	도시관리	자전거 천국 조성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401-01 자전거 도로 보수 및 시설확충	200,000	△100,000	100,000	예산 과다	297
농업축 산과	농촌복지 증진	농업 인력 전문화	학습단체운영	307-04 농촌지도자 군 한마음대회	15,000	△15,000	0	타당성 검토	314
"	농촌복지 증진	농업 인력 전문화	농업단체 자질향상	301-11 농민회 부산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참가	2,000	△2,000	0	거창 실시	315
"	농촌복지 증진	농업 인력 전문화	농업단체 자질향상	307-04 한농연가족 체육대회	18,000	△3,000	15,000	예산 과다	315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 책	단 위	세 부						
"	농촌복지 증진	농업 인력 전문화	농업인단체 자질향상	307-04 한농연 도중앙대회 참가	18,000	△7,000	11,000	예산 과다	315
"	농촌복지 증진	동물 복지	공동자원화 시설 톱밥 지원		75,000	△75,000	0	자부담필 요	357
"	농촌복지 증진	동물 복지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운영		3,600	△3,600	0	사업 재검토	357
미래농 업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향토밥상 명가 육성		30,000	△30,000	0	사업 재검토	382
체육시 설사업 소	체육진흥	체육 기반 조성	체육시설관리	401-01 읍면 야외운동기 구 설치 정비	100,000	△100,000	0	불요 불급	464

5. 조건부 승인 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해당없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1.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라. 상정일자 :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
산특별위원회(2025. 12. 19. 상정·의결)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 자금 운용체계의 이원화(총괄, 운영부서)로 책임성·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운용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과·직속기관·사업소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 성 액 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 입②	지 출③		
합 계	67,229,461	6,677,766	38,532,199	35,375,028	△31,854,433
총무위원회 소 관	62,399,706	5,848,161	37,524,599	30,723,268	△31,676,43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4,305,779	1,256,089	32,410,959	23,150,909	△31,154,870
고향사랑 기 금	984,552	402,186	130,040	1,256,698	272,146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0	4,030,000	4,030,000	0	0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 입㉓	지 출㉔		
식품진흥기금	134,971	49,350	49,000	135,321	350
중소기업육성기금	3,814,518	22,750	800,000	3,037,268	△777,250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36,811	11,447	10,000	538,258	1,447
사회복지기금	2,623,075	76,339	94,600	2,604,814	△18,261
산업건설위원회 소 관	4,829,755	829,605	1,007,600	4,651,760	△177,995
재난관리기금	3,322,264	768,000	953,000	3,137,264	△185,000
옥외광고발전기금	372,826	29,268	34,600	367,494	△5,332
체육진흥기금	1,134,665	32,337	20,000	1,147,002	12,337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6. 토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2025년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 12.



거창군의회
GEOCHANG COUNTY COUNCIL

출 장 개 요

출장목적	○ 일본 지방도시의 선진 정원시설과 화장시설 및 도시재생, 문화재생 성공 사례를 연구해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내용	○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럽형 정원인 하우스텐보스 견학 및 담당자 면담으로 거창창포원 활성화 및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전략 마련 ○ 사세보 세이부 공립 화장장 시찰을 통해 현재 공사중인 공립 화장 시설 준공 후 운영 방안과 문제점 등 연구 ○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사례인 나가사키시 마 치부라 프로젝트 관계자 면담 및 벤치마킹으로 구도심 공동화 문 제에 대한 해결책 연구 ○ 문화재생 프로젝트 성공사례인 다케오 도서관 벤치마킹으로 우리 군 공공시설 유치 및 운영 방향 연구					
출장기간	2025. 11. 10.(월) ~ 11. 14.(금) / 4박 5일					
출 장 국	일본(후쿠오카, 사세보, 나가사키, 다케오)					
출 장 자 (11명)	연번	직	성 명	연번	직	성 명
	1	의 장	이재운	6	의 원	김홍섭
	2	부의장	신중양	7	의 원	표주숙
	3	운영위원장	신미정	8	의 원	이홍희
	4	총무위원장	김향란	9	의 원	신재화
	5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10	의 원	박수자
				11	의 원	김혜숙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승 인	불 승 인
○	



목 차



I. 서론	0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0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02
1. 지방도시의 선진 정책 사례 유형	02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책임성 제고	02
III. 연구 방법 및 출장 개요	02
1. 연구 방법	02
2. 출장 개요	03
□ 출장자 명단	03
□ 세부 활동내용	04
IV. 연구 결과 및 주요 활동 내용	04
1. 하우스텐보스 정원 (관광·정원 분야)	04
□ 핵심 운영 특성 및 시사점	04
□ 심화 분석 : 경영난 극복의 핵심 요인과 시사점	05
2. 사세보 서부 화장장 (장사시설 운영 분야)	06
□ 핵심 운영 특성 및 시사점	06
□ 심화 분석 : 공공 서비스의 질적 관리	06
3.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도시 재생 분야)	07
□ 핵심 운영 특성 및 시사점	07
□ 심화 분석 :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마을 만들기)의 주체	07
4. 다케오 도서관 (공공시설 혁신 분야)	08
□ 핵심 운영 특성 및 시사점	08
□ 심화 분석 : 민간 위탁(CCC)을 통한 혁신 전략	09

V. 결론 및 정책 제언	10
1. 의원별 소감 및 정책 제언	10
<input type="checkbox"/> 이재운 의장	10
<input type="checkbox"/> 신중양 부의장	12
<input type="checkbox"/> 신미정 의회운영위원장	14
<input type="checkbox"/> 김향란 총무위원장	15
<input type="checkbox"/>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	17
<input type="checkbox"/> 김홍섭 의원	19
<input type="checkbox"/> 표주숙 의원	22
<input type="checkbox"/> 이흥희 의원	24
<input type="checkbox"/> 신재화 의원	25
<input type="checkbox"/> 박수자 의원	26
<input type="checkbox"/> 김혜숙 의원	28
2. 종합 평가 및 결론	30
3. 정책 제언 및 실천 과제	31
<input type="checkbox"/> 정책 제언 1 : 거창창포원 중심의 체류형 관광전략 구축	31
<input type="checkbox"/> 정책 제언 2 : 거창읍 구도심 재생의 주민참여 구조 제도화	32
<input type="checkbox"/> 정책 제언 3 : 거창형 복합 문화 공공시설 모델 정립	34
<input type="checkbox"/> 정책 제언 4 : 지속가능한 이용자 중심 장사시설 운영	35
4. 향후 책임 이행 및 성과 검증 계획	36
별첨 1	37
별첨 2	42
별첨 3	51
별첨 4	5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거창군은 인구 고령화 심화, 구도심 쇠퇴, 공공시설의 기능 한계, 신축 화장장 운영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관 주도 방식이나 단편적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민관 협력 모델과 공간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근본적 혁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출장은 지역 현안과 유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도시·문화 재생을 이룬 일본 지방도시의 선진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고, 이를 거창군 실정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책임을 다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출장 보고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관광·정원 분야 : 하우스텐보스 사례 분석을 통해 거창창포원 활성화 및 국가정원 승격 전략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 장사시설 분야 : 사세보시 화장시설 운영 사례를 통해 친환경 시설 운영, 유족 중심 서비스, 합리적 요금 체계 등 거창군 장사시설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
- 도시·문화 재생 분야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및 다케오 도서관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과 공공시설 혁신 방안을 도출하여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및 공공시설 운영 방향을 재정립한다.

연구 범위는 일본 후쿠오카, 사세보, 나가사키, 다케오 지역의 4개 핵심 주제(정원, 장사시설, 도시재생, 도서관 혁신)의 성공 사례에 국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방도시의 선진 정책사례 유형

본 출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선진 사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구분	선진사례	핵심내용
정원·경관 관리	하우스텐보스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테마파크형 정원 모델
공공 장사시설	사세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친환경 설계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 을 고려한 시설 운영 모델
주민참여	호우세이엔	대규모 개발 대신 보행 환경 개선과 유희 공간 재생 을 통해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 활성화 모델
도시재생 공공시설	나가사키	도서관이 문화·휴식·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으로 재탄생하여 도시의 활력을 견인하는 모델
혁신	마치부라	
	다케오	
	도서관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책임성 제고

과거 공무국외출장이 정책 및 조례 반영 성과가 미흡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인식을 엄중히 수용하여, 본 보고서는 단순한 견문 보고를 넘어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면 개정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시사점을 거창군의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였다.

III 연구 방법 및 출장 개요

1. 연구 방법

연구방법	주요내용
현장 시찰 및 관찰	하우스텐보스 정원, 사세보 서부 화장장 등 시설의 규모, 운영 시스템, 환경 디자인을 직접 관찰하여 공간의 경험적 가치분석

관계자 면담	하우스텐보스,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관계자 등과의 심층 질의응답 을 통해 사업 추진 배경, 성공 요인, 운영 노하우 등 정성적 자료 확보
비교 분석	일본 선진 사례의 운영 방식, 수익 모델, 환경 관리 등을 거창군 현황(창포원, 공립 화장장, 구도심)과 비교 하여 정책 적용 가능성 도출
문헌 및 자료 분석	방문 기관 제공 자료, 관련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현장 관찰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확보

2. 출장 개요

구 분	내 용
출장 기간	2025. 11. 10.(월) ~ 11. 14.(금) (4박 5일)
출장 국가/도시	일본 (후쿠오카, 사세보, 나가사키, 다케오)
출장 목적	일본 지방도시의 정원·화장시설 운영, 도시·문화 재생 성공 사례 연구를 통한 거창군 현안 해결책 연구

출장자 명단 [총 11명]

연번	직 위	성 명
1	의 장	이재운
2	부의장	신종양
3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4	총무위원장	김향란
5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6	의 원	김홍섭
7	의 원	표주숙
8	의 원	이흥희
9	의 원	신재화
10	의 원	박수자
11	의 원	김혜숙

□ 세부 활동내용

일자	방문 기관 및 활동 내용	핵심 연구 주제
11. 11.(화)	하우스텐보스 정원 견학 및 담당과장 면담	• 정원 활성화 : 체류형 관광 콘텐츠, 야간경관, 사계절 축제 운영 전략
11. 12.(수)	사세보 서부 화장장 (호우세이엔) 시찰	• 장사시설 운영 : 친환경 화장로, 유족 중심 편의 시설, 공공 서비스와 요금 체계
11. 13.(목)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벤치마킹	• 도시 재생 : 주민 주도 모델, 보행 환경 개선, 유휴 공간 활용 및 청년 창업 연계
11. 14.(금)	다케오 도서관 벤치마킹	• 공공시설 혁신 : 복합 문화 공간화, 민간 위탁 운영, 이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선

IV 연구 결과 및 주요 활동 내용

1. 하우스텐보스 정원 (관광 · 정원 분야)

하우스텐보스는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유럽풍 조경 미학과 계절별 대형 축제를 결합한 복합 관광 플랫폼이었다.

□ 핵심 운영 특성 및 시사점

운영 특성	거창군 창포원 적용을 위한 시사점
사계절 축제 및 테마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의 꽃을 일 년 내내 피워 방문객을 즐겁게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 • 튤립, 장미 등 계절별 대표 꽃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스케일의 축제(100만 본)를 홍보 포인트로 설정.
체류형 콘텐츠 및 야간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레스토랑, 공연 등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Show of Lights와 같은 야간 일루미네이션 쇼를 통해 체류 시간 및 재방문율을 높임.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 재활용 시스템, 공동구 시설, 코제너레이션(열·전기 동시 생산) 시스템 도입으로 친환경·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며 도시환경을 조성.
경영 혁신과 민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비용 절감, 혁신적 가격 전략, 비용 대비 효과적인 콘텐츠 강화를 통해 경영난을 극복한 사례는 창포원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필요성을 시사.

하우스텐보스는 단순한 테마파크를 넘어, '천년의 시간을 새기는 거리'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실천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 모델이다.

□ 심화 분석 : 경영난 극복의 핵심 요인과 시사점

심화 분석 항목	핵심 내용 및 성공 요인 (Sawada Leadership)	거창군 창포원 적용을 위한 시사점
속도 경영 (Speed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와다 히데오 회장 취임 후 1년 만에 흑자 전환. '스피드를 20% 올리면 비용 20% 감소'라는 원칙 하에 지적사항을 즉좌(即座)에서 대응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고객 민원이나 현장 개선 사항에 대한 '즉시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콘텐츠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료/무료 지역을 구분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어트랙션과 비일상적인 세계관을 제공하여 재방문을 유도. 리조트 호텔 및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포원 콘텐츠를 '주민을 위한 공간(무료)'과 '수익을 위한 관광 콘텐츠(유료)'로 명확히 분리하고, 야간 일루미네이션 등 '비일상적 경험'에 투자해야 함.
지속 가능성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단지 시대의 콘크리트 제방을 자연석 호안으로 재정비하여 생물 환경을 보존. 천연가스/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발전량(시간당 1500kW)으로 전체 전력의 약 30%를 자체 공급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의 공공시설 개발 시 패시브 하우스 개념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다양한 테마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며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하우스텐보스

(사진출처:나가사키현 공식 관광 홈페이지, <https://www.discover-nagasaki.com/ko/sightseeing/259>)

2.

사세보 서부 화장장 (장사시설 운영 분야)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은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면서도 유족의 심리적 돌봄과 환경적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 핵심 운영 특성 및 시사점

운영 특성	거창 공설화장장 적용을 위한 시사점
공공성과 요금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에게는 낮은 비용(10,000엔), 타 지역민에게는 차등 요금(54,000엔)을 적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함. • 공립 시설 운영 적자 구조는 불가피함을 확인.
유족 중심의 환경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장 주변에 자연 경관과 정원, 휴게 시설등을 조성하여 유족의 심신을 위로하는 '정서적 돌봄 공간'의 역할을 강조.
환경 기준 및 유지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기준에 맞추다 보니 화장로의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20~30년을 사용하는 지속 운영 방식을 유지. • 친환경 화장로 도입의 필요성 확인.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종파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전예약제를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함. • 기능직/회계/행정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품질을 유지.

사세보 호우세이엔은 화장로 7기 외에 소아·태아 전용 화장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족 중심의 편의를 위해 이동약자 배려 설계(무장애 설계)와 밝고 개방적인 대기 공간을 조성한 점이 돋보인다.

□ 심화 분석 : 공공 서비스의 질적 관리

- 친환경 기준 관리 : 최신식 저배출 화장로와 배출가스 자동·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는 운영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지만, 공공시설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일본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 복지 서비스 연계 : 유족 중심의 편의 공간은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시민/타지역민 차등 요금제는 공공의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집중시키는 합리적인 구조로 평가된다.

3.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도시 재생 분야)

마치부라 프로젝트는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는 작은 문제 해결에서 시작하여, 민간 주도의 시민 참여와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이룬 모범 사례이다.

□ 핵심 운영 특성 및 시사점

운영 특성	거창읍 구도심 재생을 위한 시사점
민간 주도와 민관학 협력	• 도시재생을 민간이 주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민·관·학이 공동 보조 를 맞추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함.
보행 환경 및 공간 재생	• 차량 접근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 거리 를 조성하며, 빈 점포를 활용 하여 청년 창업, 예술·공방 공간을 제공.
역사성 보존	• 시민들과의 교류로 만들어진 재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역사로 부터의 연장선상 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향성을 설정.
공공의 역할	• 공공은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통해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자 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조정자 역할 을 수행.

마치부라 프로젝트는 보행 위주의 도시 환경 조성 and 주민의 역사 보존 의지가 결합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이룬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사례이다.

□ 심화 분석 :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마을 만들기]의 주체

- 주민 주도 철학 : 나가사키 시민들은 역사와 문화가 뿌리내린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재생 가이드라인¹⁾'을 만들었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도 '역사로부터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 줄 것을 강하게 희망했다.
- 유희 공간 활용의 실효성 : 대규모 개발보다는 골목 단위, 생활 단위의 섬세한 개입이 도시를 살릴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공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인구 소멸을 늦추는 간접적 수단이다.

1)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의 '재생 가이드라인'(まちなか再生ガイドライン)은 나가사키시가 시민들과 함께 도시 재생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공동의 지침서로, 민간 및 시민 주도의 재생을 지원하면서도, 나가사키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나가사키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침 <https://www.city.nagasaki.lg.jp/page/2160.html>)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나가사키시 마치부라 프로젝트(まちぶらプロジェクト)
(사진출처:나가사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nagasaki.lg.jp/soshiki/115/>)

4. 다케오 도서관 (공공시설 혁신 분야)

다케오 도서관은 소도시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운영 전문성을 도입하여 도서관을 지역의 경제·관광·문화 활성화 플랫폼으로 변모시킨 성공 사례이다.

□ 운영 특성 및 시사점

운영특성	거창군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시사점
복합 문화 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점(츠타야)과 카페(스타벅스)를 결합하여 휴식·학습·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구현. 연간 이용자 수를 360% 증가시킴.
민간 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소유는 시가 유지하되, 전문 민간 운영사에 관리 운영을 전적으로 위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함. 시 직원은 관장 외에는 필요 없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무휴, 오전 9시~밤 9시 운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강좌 및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무료제공. 양케이트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7,000~8,000권의 도서를 구매하여 콘텐츠 품질을 유지하며, 아동·청소년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화 운영.

인구 5만 명 소도시의 도서관이 연간 100만 명(그중 40만 명은 타지역민)이 찾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것은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한 민간의 파격적 아이디어와 운영 능력 덕분이다.

□ 심화 분석 : 민간 위탁(CCC)을 통한 혁신 전략

심화 분석 항목	핵심 성공 요인 (CCC: Culture Convenience Club)	거창군 공공시설 적용을 위한 시사점
고정 관념 타파 및 공간 재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서점(츠타야)과 카페(스타벅스)를 결합하여 대화, 독서, 휴식, 쇼핑이 공존하는 라이프스타일 제안 공간으로 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공간의 복합 기능화를 추진하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부각.
편의성 및 접근성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정시 퇴근 관행을 깨고 연중무휴, 밤 9시까지 운영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킴. 츠타야 포인트 카드 연동을 통해 대출 및 결제 편의성을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접근성 및 개방시간 혁신을 위한 운영 시간의 탄력적 확대. 모든 공공시설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통합포인트 도입 등 결제 편의성 증대.
타겟 설정 및 피드백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타겟을 30~40대 육아 세대(주부)로 설정하여 어린이 도서 공간을 독립적으로 강화. 이벤트 후 즉시 앙케이트를 받아 다음 기획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운영 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시스템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공간 재배치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야 함.



공간 혁신과 복합시설화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다케오 도서관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의원별 소감 및 정책 제언

이재운 의장

○ 민간 주도와 자생력의 중요성

나가사키의 '마치부라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차이는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나온다.

나가사키는 마을 만들기의 주체가 행정인 것이 아닌 민간(주민)이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무른다. 주민들이 행정 보조금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보편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가능해진다.

반면, 우리 거창군을 포함한 국내 대다수 프로젝트는 행정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외부 에너지(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들고, 주민들은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인 의식'보다는 행정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 의식'에 머물게 한다.

실제로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자립률이 낮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5년 내 자립률은 10~20%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 자체가 멈추거나 기능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나가사키의 사례는 외부 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주민의 자발성(내부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 활력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준다.

○ 민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거창군의 과제

- 보조금 의존도 축소 및 자립 지원 강화

- 현 황 : 현재 지자체 보조금은 '마중물 역할'을 넘어 '주된 자금원'으로 기능하며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 정책제언 : 행정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자립 목표 달성 가능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초기 투자 이후 자립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 활용방안 : 행정안전부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기준 중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자립화 노력' 항목의 비중을 높여, 주민 스스로 수익 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같이, '민간 투자 및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하는 경우에 매칭 지원을 우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자본 유입을 장려해야 한다.

• 주민 역량 교육의 '사업가 정신' 강조

- 현 황 : 현재 주민 교육은 행정 절차 및 회계 집행에 치우쳐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 마인드'와 '자립 의지' 배양에는 미흡하다.
- 정책제언 : 거창군 주민 교육 과정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형 사업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 한다.
- 활용방안 :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창업 활동 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소상공인 생존율은 교육 수준 및 경영 능력과 연관된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 '시장 분석', '수익 모델 설계', '민간 자금 유치' 등의 실질적인 사업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주민들이 행정 의존형이 아닌 수익 창출형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행정 역할의 '규제 해소 및 연결' 중심 전환

- 현 황 : 민간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려 해도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 정책제언 : 거창군은 민간 주도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 활용방안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규제 완화 사례 연구를 참조하여, 거창군 특화 민간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 또는 '유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행정의 자원 연결자(Linker)가 되어, 아이디어와 자금(민간 금융), 그리고 필요한 기술(지역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즉, 행정은 돈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주체로 바뀌어야 한다.

신중앙 부의장

○ **창포원 발전 방향 및 관광 인프라 집중**

이번 하우스텐보스 정원 방문은 거창군 최대 관광지인 창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하우스텐보스의 경우 기차역과의 접근성, 넓은 면적, 유럽풍 건축물, 운하 크루즈 등 관광객을 장시간 머물게 하는 체류형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정원 내 호텔 숙박 시설은 야간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42만㎡ 규모의 창포원은 그 면적과 수량 면에서 하우스텐보스(152만㎡)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관광 상품으로서의 완성도 면에서 큰 격차가 있음을 느꼈다. 특히, 거창군이 40여억 원을 투입한 야간경관 조명 시설 사업의 경우, 숙박 시설이라는 핵심 체류 기반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먹거리와 문화시설 부족은 창포원의 고질적인 약점이다. 유기농 복합단지 사업과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이 일부를 채워줄 수 있겠지만, 하우스텐보스처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창포원의 건물 조성 시, 현대적이기보다는 자연과 어울리며 건축물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특색있는 건축물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거창창포원의 발전방향 -‘체류형 정원’으로의 도약

• 체류형 숙박 시설 도입 필요

창포원의 야간 경관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거두려면 체류형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투자된 40억 원 규모의 야간 경관을 활용하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야경을 즐기도록 창포원 인근에 숙박 시설(호텔)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보면, 숙박 시설이 연계된 관광지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평균 체류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는 방문객이 거창 지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추가적인 소비(식사, 쇼핑 등)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민자 유치 또는 공공 개발 방식의 시설 확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관광 연계 교통망 강화로 접근성 개선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접근 용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KTX/ITX 등 광역 교통망 연계가 어려운 거창군의 경우, 내부 이동의 편리성이 곧 경쟁력이 된다. 하우스텐보스 사례처럼 거창읍과 창포원 간의 셔틀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이 정원에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 '접근 용이성'은 재방문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부 교통망 효율화는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건축물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여 방문 동기 창출

앞으로 창포원 주변으로 새로 지어질 공공 건축물은 단순히 기능을 넘어, 건축물 자체를 관광 자원이자 사진 촬영 명소(포토존)로 활용해야 한다.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의 정체성이나 스토리를 담은 '특색있는 건축물'을 지향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이색적인 건축물'은 방문객 유입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한다. 특히 젊은 층이 원하는 '인증샷'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건축물 특색에 대한 투자는 창포원 방문 목적 자체를 창출하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신미정 의회운영위원장

○ 하우스텐보스 정원

- 지방의 지역축제를 활용한 지역 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이 필요함을 느꼈다.
- 군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민간전문업체의 기획,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하우스텐보스처럼 단일 관광지에만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숙박, 음식, 체험, 교통, 지역상품이 함께 성장하는 패키지 구성도 필요하다.
- 계절별 꽃축제가 핵심적인 볼거리인 것처럼 거창의 봄축제도 아리미아 꽃축제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

- 단순한 화장기능을 넘어 추모, 대기, 편의공간까지 제공하는 운영방식은 우리 군 장사시설에 참고할 만 하였다.
- 저탄소 친환경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친환경 화장로 도입과 환경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유족 응대 전문인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전담 안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 사세보시의 합리적 요금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의 높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도 지역여건에 맞춘 합리적 요금체계와 공공성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마치부라 프로젝트

- 우리 군도 중심지나 전통시장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디자인과 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
- 우리 군도 빈점포 및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플랫폼이나 문화, 체험 기반 상권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주민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해 사업 지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보행중심 환경, 유휴공간 활용, 콘텐츠 기반 활성화는 우리군 중심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시찰은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주민참여와 지역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 다케오 도서관

-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닌 휴식, 학습, 문화활동이 공존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야간 개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서점, 문화단체와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열람석 개선, 스터디룸 확충 등 아동·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이 지역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방문객 증가에 기여하는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
- 다케오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 만족도 제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김향란 총무위원장

○ ‘마치부라 프로젝트 인증 제도’ 도입으로 거창군 도심 활성화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인증 제도’란?

나가사키시의 마치부라 프로젝트 인증 제도는 도시 활력 재생을 위한 시민 주도형 행정 지원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게 프로젝트의 당사자 의식을 부여하고, 그들의 지역 공헌 활동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활성화 노력에 행정적 공신력을 부여한다. 인증 대상 사업은 역사적·문화적 매력을 높이거나,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즐기게 하거나, 또는 정비된 시설의 효과를 높이는 등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민간 주도 사업을 포괄한다. 이는 곧 시민의 자발적 활동에 명예와 가치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이다. 현재 106호 인증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거창군 도심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현재 거창군 도심 활성화 사업은 나가사키의 '인증 제도'와 같은 민간 참여 유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사업이 주로 관(官) 주도로 기획되고 실행됨에 따라, 지역 상인이나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자발적인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 이는 사업이 외부 용역이나 행정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업 종료 후 활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주체(상인, 주민, 청년)의 당사자 의식 및 책임감 부재이다. 주민들은 단순 수혜자나 협조자로만 남아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 의식이 낮아지며,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소규모 활동이 행정의 복잡한 절차나 공모 사업의 틀에 갇혀 발굴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체계가 미흡하다. 이는 곧 시민들의 잠재적 역량을 도시 활성화로 연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마치부라 프로젝트 인증 제도의 거창군 접목 방안

나가사키의 '인증 제도' 모델을 거창군에 도입하면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다.

- '거창읍 구도심 활력 인증 사업' 제도 도입 및 정의

거창군 실정에 맞는 명칭(예: '거창읍 구도심 활력 인증 사업')을 제정하고, 군 조례 또는 고시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장 주변, 로터리 일대 등 구도심을 공식 '인증사업 대상 구역'으로 지정한다. 인증 대상 사업으로는 구도심의 역사·문화 재발견, 폐점포 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 그리고 창포원 등 외곽 관광지와 구도심을 연계하는 특색 있는 캠페인 등을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인증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역 힘 강화

인증 신청 주체를 시민, 상인회, 청년 단체,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군수는 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업에 대해 공식 인증서를 교부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는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활동 동기를 부여한다.

- 인증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우대

인증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공 공간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당 사업을 군비 지원 공모 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거창읍 구도심 활력 인정 사업' 제도를 통해 거창군은 관 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상인, 주민,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재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활력 재생에 기여할 것이다.

❑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

○ 거창 유기농복합단지-창포원 연계 체류형 관광 개발 제언

거창 창포원과 유기농복합단지를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와 같은 체류형 관광 명소로 연계 개발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우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하우스텐보스의 성공 요인인 '압도적인 규모', '테마화된 건축물', '숙박 시설 연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거창의 자원에 맞게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한다.

• **핵심 인프라 구축 : 체류형 숙박 및 테마 건축 확보**

창포원의 야간 경관 투자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을 당일 방문이 아닌 1박 2일 이상 체류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체험형 숙박 시설을 유기농복합단지 내 또는 인접 부지에 유치하거나 공공 개발해야 한다. 유기농/웰니스를 테마로 하는 숙박 시설(테마형 숙박, 글램핑 시설 등)을 조성하고, 하우스텐보스가 야경 관광객을 유치하듯 이 시설을 창포원 야간 경관과 연계한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하여 체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지출 증가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또한, 유기농복합단지 내 상업 시설이나 체험 시설을 단순 건축물이 아닌 특색 있는 '작품성' 있는 건축물로 조성하여, 그 자체가 방문의 이유가 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하우스텐보스의 유럽풍 궁전처럼, 거창의 '자연'과 '유기농' 테마를 살린 친환경 디자인 건축을 통해 포토존(인증샷 명소) 수요를 충족하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매력을 확보해야 한다.

• 콘텐츠 및 즐길 거리 : 유기농 소비와 체험 동선 연계

하우스텐보스 내 푸드코트와 크루즈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듯이, 두 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먼저, 두 단지 간의 도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유기농복합단지에서 창포원까지 이어지는 특색 있는 교통수단(예 : 미니 트램, 테마형 셔틀)을 구축하여 전체를 하나의 관광 구역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하우스텐보스의 크루즈처럼, 이 순환형 교통수단 자체가 새로운 볼거리이자 즐길 거리가 되도록 디자인과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기농 미식 거리 및 마켓을 조성해야 한다. 유기농복합단지 내에 거창의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를 활용한 'Farm-to-Table' 기반의 전문 레스토랑 및 푸드코트를 조성하고, 방문객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유기농 직거래 마켓'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이는 창포원의 먹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의 체류 소비 지출액을 직접적으로 늘려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 운영 및 마케팅 : 통합 브랜드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두 시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가 테마파크'로 통합 관리하고 마케팅해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창 유기농 웰니스 파크' 통합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거창 창포원'과 '유기농복합단지'를 아우르는 통합 명칭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나의 통합 입장권 및 패키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두 시설이 '하나의 목적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방문객 유입 규모를 키워 하우스텐보스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 창포원 관리 주체와 유기농복합단지 운영 주체, 그리고 유치된 숙박 및 상업 시설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이 아닌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이는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발굴하는 마치부라 프로젝트의 정신과도 일치하며,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김홍섭 의원

○ 일본 현장에서 확인한 지역 활성화의 작은 실험들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 걷고 싶은 구도심을 다시 만드는 법

나가사키 시내에서 추진 중인 '마치부라 프로젝트'는, 쇠퇴한 구도심을 다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다.

-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점포·카페·공방 등으로 다시 활용
- 골목 단위의 거리 디자인, 보행 환경 개선, 소규모 광장 조성
- 이탈했던 상권과 젊은 창업자들을 다시 도심으로 유인하는 인센티브 제도
- 행정은 규제 완화·임대료 지원 등 '마중물' 역할, 실제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민간(특히 청년 사업자)이 채워나가는 구조

현장에서 받은 인상은 명확했다.

“도시를 살리는 힘은 결국 ‘걸으며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다.” 거창읍 구도심 역시 공실과 노후 건물이 늘고 있다. 대형 개발이 아니라, 골목 단위의 리모델링·창업 유치·거리 디자인 등 소규모·점진적 개입이 지역 활성화의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다케오 도서관 - 머무는 경험을 중심에 둔 공공시설

다케오 도서관은 이미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사례이지만, 실제로 가서 본 공간은 단순한 “멋진 도서관”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에 가까웠다.

- 서점·카페·전시 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 개방형 서가와 넓은 열람 공간, 아동·가족·청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
-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장서 구성의 유연성 확보
- 이용자 동선·체류시간·대출 패턴 등 데이터를 분석해 공간 재배치 및 프로그램 조정

인상 깊었던 점은 “공공시설도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해 끊임없이 구조를 바꾸는 존재”라는 점이였다. 단순히 책을 쌓아놓고 ‘와서 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기 편한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독서·교류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였다.

거창의 도서관 및 문화시설 역시 이용자의 실제 행태 분석과 체류 중심 공간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현장에서 느꼈다.

- 하우스텐보스 정원 관리 - 경관이 관광과 경제를 만든다

하우스텐보스는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대형 테마파크이므로, 그대로 비교·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점은 참고할 만했다.

- 계절별 꽃·수목 구성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언제 가도 볼거리 있는 경관’을 조성
- 야간 경관·축제·이벤트를 연중 배치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

이는 거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감악산, 수송대, 가조 온천)·축제(감악산 아스타 축제, 창포원)·경관농업(서덕들 등)과 결합할 때, “스쳐 가는 관광 →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거창군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이번 일본 연수를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거창군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거창읍 구도심 ‘작은 실험’ 프로젝트(가칭)

-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골목 단위 리모델링·점포 유치 사업 추진
-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인테리어·리모델링 보조 등 인센티브 검토
- 보행환경 개선, 야간 경관 조성, 소규모 광장·문화공간 조성
- 거창형 '머무는 도서관' 모델 구축
 - 현행 도서관 이용 데이터(대출, 방문 시간대, 연령대, 체류시간 등) 분석
 - 야간·주말 개방 확대 여부 검토
 - 북카페, 소규모 공연·강연, 청년 스터디·동아리 공간 등 복합 문화 기능 강화
 - 장기적으로는 '거창 대표 도서관'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 시, 다케오 모델을 참고한 설계 기준 마련
- 경관·축제·관광의 연계 강화
 - 감악산, 창포원, 수송대, 금원산, 서덕들, 가조 온천 등 기존 자원과 계절별 경관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 야간 경관과 계절별 축제를 묶어 '다시 찾는 거창' 이미지 구축
- 해외연수 성과 공개 및 평가 제도화
 - 연수 전·후 성과 지표를 의회 차원에서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달성 여부를 공개
 - 본회의·상임위원회에서 연수 내용을 근거로 한 정책 제안·조례 발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민에게 보고
 -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해외연수 성과 검증 방식에 대한 공개 토론 추진 검토

○ 마무리 -“비행기표가 아니라, 성과 증명서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한 문장이 마음에 남는다.

“지금 거창군의회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행 비행기표나 새 여권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증명서다.”

이번 일본 연수는, 나 개인에게도 이 말을 어떻게 실천으로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보고서는 그 첫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본회의 발언,정책 제안 및 조례 발의, 군정 질문 등을 통해, 이번 연수에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거창군의 구체적인 변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해외연수의 정당성은 출입국 도장이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결과로만 증명될 수 있다. 이번 일본 현장에서 확인한 작은 실험들이 거창군의 현실 속에서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 표주숙 의원

○ 마치부라 프로젝트 연계 정책 제언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방향

• 민간 자생력 확보 및 소득 구조 혁신

동산마을 정비사업에 투입된 대규모 예산(295억 원)이 일회성 환경 개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마치부라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지역 스스로 마을 만들기' 원칙을 따라 주민들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령화된 주민들이 축산업 폐업으로 잃은 생계 수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노동력이 아닌 서비스업 중심의 소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행정은 단순히 시설 관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성과 기반의 자립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이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복합 공간(200㎡)을 활용하여 고령 주민이 '역사 해설사' 및 '쉼터 관리자'로 활동하는 고령 친화형 소득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공간이 '역사테마 쉼터 카페'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한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외부의 경쟁력 있는 상업 사업자를 공개 입찰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마을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 역사 보존과 이미지 개선을 통한 매력 극대화

동산마을이 가진 한센인 정착촌의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유와 상생의 역사'라는 긍정적 매력으로 전환하는 '지역 매력 만들기' 전략이 필요하다.

마을 역사의 핵심인 이운길·이삼길 형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기리는 테마 기록관을 문화 복합 공간 내에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록 전시를 넘어 거창 근대사 연계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외부 방문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스토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이 잊히지 않도록, 유해 시설 정비 외에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생 건축 기법을 적용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쉼터' 또는 '기록관 부속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개발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장치이자 특색있는 건축물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노력인 '씨앗 약방 프로젝트'를 공식 사업으로 반영하고, 텃밭 및 녹지 공간에서 원예 치료 등 주민들의 심리 치유와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외지인과 함께하는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마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환대하는 공동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연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축 완성'

동산마을이 고립된 장소가 아닌, 거창군 전체 관광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도록 '축 만들기'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거열산성 2차 도로, 분산성 개발에 발맞춰 동산마을을 함께 묶어 '거창 역사 치유 벨트'로 통합 마케팅해야 한다. 동산마을의 쾌적한 환경과 치유 프로그램을 이 벨트의 주요 체류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적인 구상도 필요하다. 쾌적하게 정비된 환경을 바탕으로 '귀촌 희망자 대상 임시 거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 시설 철거 외의 기존 낙후된 주거 시설에 대해서도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 등 '고령 친화형 맞춤형 주택 개선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정주 환경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의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

□ 이흥희 의원

○ 거창군 공공시설 운영 혁신정책 제언 : 유치보다 운영이 핵심

이번 출장에서 벤치마킹한 일본의 다케오 도서관,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등 성공적인 공공시설 운영 및 지역 활성화 사례들은 시설의 물리적 유치보다 혁신적인 운영 방식이 지역 활력과 주민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거창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향후 유치할 모든 공공시설은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시설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 활력의 거점이자 수익 창출 기반으로 전환하는 '운영 혁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운영 패러다임 전환 : '관리'에서 '자립 및 서비스 혁신'으로

공공시설 운영의 목표를 행정 편의에서 주민 만족도 극대화과 지역 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기존의 행정 직영 방식은 경직된 운영 시간과 관료적인 서비스로 인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시설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시설을 단순 기능 공간이 아닌 수익 창출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는 다케오 도서관이 민간 전문 위탁과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이룬 혁신적 성공을 거울삼는 것이다.

• 공공시설 운영 혁신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 민간 전문성 도입 및 복합 공간화 전략
 - ◆ 효율적인 위탁 운영 : 의료복지타운, 유기농 복합단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은 경영 능력이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직접 운영이 아닌 평가와 관리 감독으로 전환된다.
 - ◆ 복합 수익 공간 조성 : 다케오 도서관의 사례처럼 공공시설(도서관, 지역활력타운, 복합단지) 내에 지역 소득과 연계된 상업 시설(카페, 로컬 마켓 등)을 유치하여 시설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고 자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성과 기반 자립 시스템 및 재정 독립 유도
 - ◆ '자립 성과 매칭 펀드' 도입 : 시설 운영 주체가 자체 프로그램 유료화, 수익 공간 임대 등을 통해 일정 수익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행

정이 추가적인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 기반 매칭 지원 제도'를 도입해 시설의 자발적인 운영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는 마치부라 프로젝트의 자발적 참여 정신과 일치하며,

- ◆ 지역 소득 연계 의무화 : 유기농 복합단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운영 주체의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투명성 확보 및 지역 주민 참여 강화
 - ◆ 환경 데이터 실시간 공개 : 화장장 등 환경 민감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 사례처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 ◆ 주민 공동 운영 위원회 활성화 : 주요 공공시설에 지역 주민이 과반수 참여하는 '운영 및 감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환경 관리, 프로그램 기획, 민원 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들이 시설을 지역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된다.

□ 신재화 의원

○ 민간 주도의 중요성과 공공건축의 품격

나가사키의 '마치부라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재생 사업의 주체가 정부나 행정이 아닌 지역사회와 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는 '지역 매력 만들기', '지역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전략으로 민간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교해 우리 군의 상동어울림센터나 죽전만당 도시재생 사업이 마치부라 프로젝트의 '지역 스스로 마을 만들기' 전략과 얼마나 상통하는지 심도 있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관 주도로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행정의 도움(보조금)을 바라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사업의 자생력은 절대 확보될 수 없다. 이는 국내 도시재생 사업의 자립률이 10~20%대에 그치는 현실적 근거로 나타난다.

또한, 다케오 도서관과 사세보시 호세이엔 화장장을 보며 공공 건축물의 품

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다케오 도서관은 스타벅스 입점 및 공원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도시재생의 상징이자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화장장 역시 유족의 심신을 달래주는 휴게시설과 자연경관을 갖추어 혐오 시설의 인식을 탈피하려 노력했다.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에서는 화장실 하나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 군 화장실 조성 공사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공 건축물 조성 시 작품성과 투자가 필요함을 느꼈다.

○ 자립형 도시재생 및 공공 건축 혁신

- 도시재생의 민간주도 자립화 : 마치부라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민간 화장실 개방 통합 관리와 같이 민간의 아이디어와 편의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주민 자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자립률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건축물의 관광명소화 : 향후 조성되는 공공 건축물은 단순 기능충족을 넘어, 다케오 도서관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유휴 부지가 남아있는 화장장은 사세보 화장장처럼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게 및 문화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어린이 전용 도서관 조성 검토 : 다케오시(인구 4.5만 명)에도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 만큼, 어린이 전용 도서관 조성 계획을 검토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박수자 의원

○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주민공모제도 제안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의 일환인 '도심 활력 활동 지원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민간 아이디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 모델을 참고하여 거창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주민 공모 제도'를 제안하며, 이는 거창군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안하는 제도의 명칭은 거창군 '구도심 활력 창의 공모 사업' (가칭)이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 목표 지역 내에서 주민과 상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의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나가사키 시의 '민간 주도, 행정 지원' 모델을 거창군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 공모 자격 및 대상 사업

- 공모자격 : 나가사키 모델을 참고하여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주된 활동 거점을 둔 개인, 상인회, 주민 조직, 청년 단체, 비영리 법인 등으로 설정해 실질적인 현장 활동가인 주민과 상인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사업 목표 지역은 거창읍의 구도심 활력 지역(시장 주변, 로터리 등)으로 한정하며, 해당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다.

- 대상사업 유형(예시)

- ◆ 문화·역사 스토리텔링 분야에서는 구도심 내 역사적 건물이나 노포를 활용한 문화 전시/체험 프로그램이나 읍내 스토리텔링 투어 개발 등을 지원
- ◆ 상권 및 유희 공간 활용 분야에서는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팝업 스토어 운영, 주민 쉼터 조성, 야간 경관과 연계된 특색 있는 야시장 기획 등을 유도
- ◆ 지역 자원 연계 분야에서는 창포원 등 외곽 관광지와 구도심 상권을 연계하는 할인 쿠폰 발행이나 셔틀 연계 이벤트 등 관광객 동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

- 지원내용 및 추진체계

- 지원규모 : 거창군의 예산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로 설정한다. 이는 나가사키 모델(50만 엔 이내)과 유사한 규모로, 소규모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보조/자부담 비율은 나가사키 모델과 동일하게 80:20으로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한다. 사업 기간은 공모 결정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제한하여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 추진절차 및 관리 : 공모는 도시재생 관련 부서를 통해 공고하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심사 시에는 사업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역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주민 참여의 지속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관련기관이 컨설팅 및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성공률을 높인다. 사업 완료 후에는 주민들이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 기대효과 : 주민주도 도시재생 실현

'구도심 활력 창의 공모 사업' 제도를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주민 스스로의 의식과 실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행정 주도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프로젝트가 추진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활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부담 설정으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소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모를 통해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 현장성 높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구도심의 매력을 다각화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거창군이 주민들의 잠재된 에너지를 도시재생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혜숙 의원

거창 공설 화장장의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西武齋苑)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자연과의 조화'와 '유족 심리 배려'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친환경 및 조경 정책 : '치유 공원'으로의 인식 전환

화장장이 혐오 시설이 아닌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화장장 전체 부지 10만 평 중 1만 평만 사용하고 남은 넓은 면적을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처럼 주변 자연경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수목

장림, 잔디광장, 테마 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군민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장사시설을 '힐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여 지역 주민의 심리적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한다.

또한,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 운영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화장로 운영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신 오염 방지 설비(초미세먼지 필터,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등)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성능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친환경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 운영 및 서비스 정책 : '유족 심리 안정' 최우선 배려

유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장례 절차가 곧 치유 과정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처럼 유족 대기실 외에 개별 명상실, 가족 휴게 공간, 작은 정원 등을 조성하여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애도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 친화적인 시설도 병행하여 유족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관내 주민 우선 예약 및 할인 혜택을 명확히 하되, 타 지역 이용객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사세보의 사례처럼 화장장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타 지역 유입을 통한 운영 효율성 및 광역 서비스 기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주민 소통 및 투명성 정책 : '갈등 제로' 시스템 구축

화장장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이다. 화장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미세먼지, 오염 물질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마을 회관 및 군청 홈페이지

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는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막연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특히 인근 마을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화장장 운영 및 환경 감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운영 방침, 환경 관리 감독, 민원 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감시자'가 아닌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여, 화장장 사업을 지역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된다.

2. 종합평가 및 결론

이번 출장은 일본 지방도시의 이용자 중심 설계, 민관 협력, 체류·참여를 유도하는 공간 운영, 인문적 가치와 데이터의 조화라는 4가지 주요 시사점을 확인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

이는 거창군이 당면과제인 ▲관광 활성화 ▲공설화장장 운영 ▲구도심 공동화 ▲공공시설 한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혁신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일본 지방도시의 성공 사례들은 거창군이 직면한 '지방 소멸'문제의 해법이 대규모 개발이 아닌, 민간의 전문성, 이용자 중심의 혁신,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성공 사례의 공통점	거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민간 전문가 및 주민의 주도적 참여	•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를 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해야 함.
공간의 복합적 활용 및 체류 유도	• 모든 공공시설과 관광지를 '머무는 경험' 중심 으로 재설계하고 야간 경관 콘텐츠 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환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3. 정책제언 및 실천과제

본 출장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이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군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발의 등의 방식으로 책임있게 후속 조치 될 것이다.

□ 정책 제언 1 : 거창창포원 중심의 체류형 관광전략 구축

- **민간위탁 및 전문기업 적극 유치** : 축제 기획, 야간 경관 운영 등 창포원의 핵심 수익 창출 분야에 대해 5년 이상 장기 위탁계약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투자유치 모델 도입** : 공공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검토한다.
- **체류형 야간 콘텐츠 개발** :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일몰 후에도 즐길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분수쇼, 야간 레이저쇼, 미디어 파사드 등을 결합한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 상시 운영하여 야간 관광 수요를 흡수하고 숙박시설 이용을 유도한다.
- **통합브랜드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 : 분산된 봄 축제를 '아리미아 꽃축제' 중심으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거창 관광의 통일된 이미지 확립한다.
축제 운영 위원회에 여행사, 숙박, 외식업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 친화적이고 수익성 높은 콘텐츠 기획 능력을 확보
-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 : 관광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관광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해야 한다.
창포원 내 주요 동선에 휠체어/유모차 전용 경사로 및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전용 저상형 셔틀버스 또는 배려형 관람차 도입을 검토하여 '유니버설 투어리즘(Universal Tourism)'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본 제언을 통해 거창창포원은 단순 방문형 공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남 서북부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정책 제언 2 : 거창읍 구도심 재생의 주민참여 구조 제도화 및 활력 증진 방안

○ '거창읍 마을만들기 위원회(가칭)' 발족 및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

- **통합 거버넌스 구축** :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단계 전반에 걸쳐 주민 대표, 상인, 청년 활동가, 행정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 **운영 규정 마련 및 법제화** : 위원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위원회의 의사 결정 참여를 제도화하여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한다.
- **주민 주도형 공모 시스템 도입** : 주민, 상인, 예술가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생 사업 공모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빈집 활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청년 창업 및 문화 공간 조성

- **빈 점포 현황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구도심 내 공실 상태인 빈 점포 및 유휴 공간의 정확한 위치, 면적, 소유주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청년 및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빈집·유휴 공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임대료 보조** : 선정된 '빈집 활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대해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에게는 초기 1~2년간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여 진입 장벽을 낮춘다.
- **문화·창업 플랫폼 조성** : 활용 공간을 단순히 상업 시설이 아닌, 청년 창업 공간, 예술·공방, 팝업 스토어,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하여 구도심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다.

○ 보행자 중심 거리 디자인 조례 검토 및 환경 개선

- **보행자 중심 거리 디자인 조례 마련** : 특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 특화 거리'로 지정하고, 이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의무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
- **도시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 차량 접근을 줄이고 보행자가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 확장, 무장애 동선 설계(Barrier-Free), 벤치 및 휴게 공간 확충, 공공 예술 조형물 배치 등의 도시 디자인 개선 정

책을 추진한다.

※ 벤치마킹 사례 : 나가사키 마치부라의 보행 여건 우선 정책

- **상가 연계형 가로 환경 조성** : 보행로와 연접한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는 가로 환경(예: 테라스형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사람들이 거리에서 머무르며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 거창읍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재생을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활력 플랫폼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찾아오는 거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정책 제언 3 : 거창형 복합 문화 공공시설 모델 정립

○ 지정관리자 제도(민간 위탁) 도입을 통한 운영 혁신

-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 시설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마케팅 및 기획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 운영사(기업, 비영리 재단 등)에게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 민간 협업 모델 도입 및 공간 재구성 : 시설 내 유희 공간 및 비수익 공간을 활용하여 서점, 카페, 문화상품 판매점 등 민간 상업 시설과의 협업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자립도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 벤치마킹 사례 : 일본 다케오 도서관의 츠타야 서점 위탁 운영

- 아동·청소년 공간 특화 : 미래 세대의 문화 향유를 위해 아동 전용 도서관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내에 아동·청소년 중심의 독서 및 체험 공간을 대폭 강화하여 가족 단위 이용을 유도한다.

○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시스템 도입

- 탄력적인 시설 운영시간 적용 : 평일 야간 개방 및 주말·공휴일 운영 확대를 통해 직장인 및 학생 등 기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수요자를 포괄한다. 시설별 특성과 이용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운영시간을 적용한다.
- 거창군 공공시설 통합 회원 플랫폼 구축 : 도서관, 체육 시설, 공연장 등 관내 모든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 기록, 예약, 결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회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 통합 포인트 제도 도입 : 공공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시설 이용료 감면, 도서 구매, 공공시설 내 협력 상업 시설 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 동기를 부여한다.

- 거창군의 공공 문화시설을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혁신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주민 만족도를 끌어 올리기를 기대한다.

□ 정책 제언 4 : 지속가능한 이용자 중심 장사시설 운영

○ 유족 중심 공간 설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감 시설화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 설계** : 대기실, 추모 공간, 참관실 등 유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자연 친화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설계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는 디자인(간접 조명, 원목 소재 활용, 개방감 있는 창문 배치)을 적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벤치마킹 사례 : 사세보 화장장의 친환경적이고 밝은 공간 구성
- **유족 안내 전문인력 배치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유족에게 상세한 정보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안내 인력을 배치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 예약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시설 이용 예약, 진행 상황 확인, 관련 서류 발급 등을 모바일 또는 웹 기반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족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 지역 실정에 맞는 요금 체계 및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 도입

- **합리적인 차등 요금제 도입 검토** : 시설 건립 및 운영에 투입되는 지역 주민의 재정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거창군 시민과 타지역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여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 마련** : 막대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인건비 충당을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한다. 특히,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 및 화장로 운영 등을 검토하여 신규 수익 창출 모델로 정립한다.
 - **공공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 장사시설 이용료 수입을 재투자하여 시설 노후화 방지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화장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유족 중심의 심리적 안정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하여 장사시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군민 정서에 부합하는 화장장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

4.**향후 책임이행 및 성과검증 계획**

이번 출장 보고서는 거창군의회 정책 로드맵으로 활용될 것이며, 의원 개인은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다.

- 조례 제·개정 추진 : 정책 제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의 환경 기준, 도시재생 주민참여 구조, 도서관 운영 혁신관련 조례 제·개정안 발의 검토.
- 공개적인 성과 검증 : 연수 후 군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출장 사례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정책 반영 경과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성과보고회 개최 등으로 군민의 의회 신뢰도 제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군의 당면 현안 및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 ○ 화장시설 벤치마킹으로 공립화장장 운영 사례 연구 ○ 도시재생 및 문화재생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마련 						
출장동기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창포원 활성화 및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선진 정원시설 벤치마킹 ○ 공립 화장시설 운영 및 기피시설 지역 주민과의 조화 사례 연구 ○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마을재생 사업 모범사례 연구 ○ 문화재생 프로젝트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우리군 공공시설 유치에 접목 						
출장기간	2025. 11. 10. ~ 2025. 11. 14.(5일간)						
출 장 국	일본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계		11명			금 액	부담기관
	거창군 의회	의장	이재운	남	59	1,396천원	거창군 의회
		부의장	신중양	남	60	1,396천원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여	56	1,396천원	
		총무위원장	김향란	여	61	1,396천원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남	56	1,396천원	
		의원	김홍섭	남	56	1,396천원	
			표주숙	여	59	1,396천원	
			이홍희	남	60	1,396천원	
			신재화	남	58	1,396천원	
			박수자	여	74	1,396천원	
			김혜숙	여	72	1,396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10. (월)	부산 후쿠오카	후쿠오카 사세보	-	○ 호텔 도착 및 휴식	
11.11. (화)	사세보	사세보	하우스 텐보스	○ 테마정원 담당자 면담 및 시설 시찰	정원시설 관리 담당자
11.12. (수)	사세보	사세보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	○ 사세보 공립 화장장 시설 견학 및 담당자 면담	화장장 관리자
11.13. (목)	사세보	나가사키	나가사키시 마을사업 추진실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사례 연구 및 담당자 면담	나가사키시의회 부의장, 프로젝트 추진단장
11.14. (금)	사세보 후쿠오카	다케오 부산	다케오 도서관	○ 도서관 운영 담당자 면담 및 시설 시찰 ○ 귀국 및 거창 도착	다케오도서관 관장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거창군의회	의장	이재운	○ 출장단 총괄 관리 ○ 다케오 도서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 거창군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방향 연구
2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 다케오 도서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3		의원	표주숙	○ 다케오 도서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연구
4		부의장	신중양	○ 하우스텐보스 정원 운영사례 벤치마킹 - 선진 정원시설 거창창포원 적용방안 연구
5		의원	신재화	○ 하우스텐보스 정원 운영사례 벤치마킹 - 유럽형 테마정원 적용방안 연구
6		의원	김혜숙	○ 하우스텐보스 정원 운영사례 벤치마킹 - 정원시설 유리보수 및 관리방안 연구
7		총무위원장	김향란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벤치마킹 - 마을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8		의원	김홍섭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벤치마킹 - 노후 건축물 및 빈집 정비사업 모범사례 연구
9		의원	박수자	○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벤치마킹 - 마을재생 프로젝트에서 의회의 역할 연구
10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 화장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선진 화장시설 성공적인 운영사례 연구
11		의원	이흥희	○ 화장시설 운영방안 연구 - 기피시설의 지역 주민과의 조화방안 연구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15,356,220	1,155,000	3,623,620	7,145,600	3,377,000	55,000	
이재운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신중양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신미정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김향란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최준규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김홍섭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표주숙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이홍희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신재화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박수자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김혜숙	1,396,020	105,000	329,420	649,600	307,000	5,000	

※ 환율 : 1\$ = 1,400원으로 환산

4. 출장효과

- 우리 군의 당면 과제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프로그램,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 증대 사례 등을 연구하고 화장 시설 운영현황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등 군의 당면 현안에 대한 정책 과제 제시와 발굴하고자 함.
-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 역량을 선진지견학을 통해 배양하고자 함이며, 의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 더 나은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자 함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2025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명단	의원	11
	직원	-
	기타	-
출장기간	2025. 11. 10. ~ 2025. 11. 14.	
방문국가	일본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하우스텐보스 정원,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 화장장, 나가사키시 마을사업추진실, 다케오 도서관	
여행경비	체재비	11,924,220원
	준비금	55,000원
	항공료	3,377,000원
	차량임차료	5,450,000원
	통역비	400,000원
	물품구입	560,000원
	기타비용	-
	총 계	21,766,220원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21,766,220원						
체재비 (A=a+b+c)		11,924,220원						
	적용환율	1\$ = 1,400원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금액
일비 (a)		나	2호	15\$	5	11	825\$	1,155,000원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식비 (b)		나	2호	59\$	3	11	1,947\$	2,725,800원
		나	2호	19.4\$	1	11	213.4\$	298,760원
		나	2호	38.9\$	1	11	427.9\$	599,060원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숙박비 (c)		나	2호	116\$	4	11	5,104\$	7,145,600원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준비금 (B)		지급사유: 여행자보험 가입료				금액: 55,000원		
항공료 (C)		이용구간: 부산 - 후쿠오카 후쿠오카 - 부산				금액: 3,377,000원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4일 이용차량: 전용버스				금액: 5,450,000		
통역비 (E)		이용내역: 4개기관 × 100,000원				금액: 400,000원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우호교류 및 특산품 홍보 물 품 명: 유기수저세트				금액: 560,000원		
기타비용 (G)		해당없음						

별첨 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2025년도 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0월10일(금) 14시56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건

○심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건

(14시56분 개의)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의정담당주사 이옥주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는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58분)

○의사담당주사 이옥주 그럼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규칙에 의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추천에 의한 선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으로 윤경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예, 박정자 위원께서 윤경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박정자 위원이 추천한 윤경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경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경섭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1분)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그리고 위원장님 부재 시 위원장님의 역할을 대신할 부위원장님을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섭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첫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부위원장님이 또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부위원장님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김미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경섭 이의가 뭐, 다른 추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김미숙 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위원장님께서 김미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윤경섭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섭 예, 뭐 저희 거창군민으로서 또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사실은 선진이라고 하면 선진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와 가지고 거창군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11월 10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외국의 선진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연수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시책은 거창군 실정에 맞게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보고는 뭐, 전원 다 참석한 걸로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2025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25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건

(15시04분)

○위원장 윤경섭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건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이번에 추진하는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정담당주사 이옥주입니다. 2025년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우리 군의 당면 현안에 대해 해외 선진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잘된 점을 배워 우리 군 정책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이며 출장 국가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출장 인원은 11명이며, 예산 집행 및 자부담 등의 문제로 직원을 제외한 의원 11명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1인당 지원되는 여행 경비는 135만 6,000원 정도이며 출장 경비는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세부 일정에 대해서 일정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정 첫날인 11월 10일은 14시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15시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 후 후쿠오카 하우스 텐보스 내에 위치한 숙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11월 11일은 조식 후 9시 30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이자 유럽형 테마 정원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는 하우스 텐보스 정원을 시찰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테마 정원 운영 및 관리, 관람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거창 창포원 운영 방안 제시 및 향후 국가정원 성격 및 전국 최고의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일 차인 11월 12일에는 사세보시에 위치한 시립 서부 화장장을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화장 문화가 보편적인 일본 화장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화장장 준공 이후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코자 합니다.

4일 차인 11월 13일에는 나가사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 사례인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을 방문하여 나가사키 도시 재생 사례와 성공 경험 등을 공유해서 매력적인 거창을, 거창읍 도시 재개발을 위한 전략 구상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일 차인 11월 14일 오전에 사가현 다케오시에 위치한 다케오 도서관을 방문해 공공 시설 유치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생활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다케오 도서관은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지방 소도시를 살려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군 공공시설 유치 및 건립에 참고할 만한 케이스를 조사 연구할 예정입니다. 다케오 도서관 방문 후 후쿠오카로 이동하여 16시 후쿠오카 공항을 출발, 17시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 일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심사 자료에 제시된 대로 이번 출장은 우리 군의 당면 현안 및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별 개인 임무를 부여하여 내실 있게 준비했으며 출장 후 다양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민 의견수렴조항이 추가되어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1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10일 이상 계획서를 게시했습니다만, 또 다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출장 후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출장 보고서를 보고해서 출장 결과와 적법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출장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출장 이후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이니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오 도서관을 보시면 문화재생 프로젝트 사례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다케오 도서관이 문화재생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뭐 외부에서 온다거나 뭐 그

런 것이 제가 지금 자세히 못 읽고 와서 그런데.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우리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주무관 최용인 다케오 도서관은 지금 서울 별마당 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 그게 다케오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일반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기념품도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장점이나 단점이나 부작용같은 이런 것도 출장 후기에 정리하시면 보기 좋을 것 같고 또 하우스텐보스 정원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가 죽 한번 보니까 그렇게 생각외로 그렇게 크게 썩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뭐, 입장료도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창 입장에서는 선진사례를 배우다가 보다 시행착오 그 사례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고, 올해 국외출장 계획서를 요약하면 외유성으로 보이지 않아서 첫째는 좋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후기를 이번에는 하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늘 다녀오시면 그 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내라 해도 하는 사람이 없고 작년에도 김홍섭 의원이 하셨나? 보기에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이 후기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하우스텐보스 여기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네덜란드 풍으로 유럽정원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정원으로 알고있거든요.

가족단위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더라구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싸진 않더라구요. 비싸고.

○박정자 위원 그래, 거기서도 경영난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조금 배워 오시고. 이상입니다.

○하정용 위원 저희들 창포원이 사실 습지 특화로 되어 있는데 순천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나라의 정원을 테마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포원도 약간 예산이 되면 뭔가 특화를 시키는, 단지 습지 식물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만약에 의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런 방안들도 같이 조금 생각해가지고 하면 저희 창포원이 그래도 터가 굉장히 넓고 크게 할 수 있는 예산만 투입하면 그래서 뭔가 테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여 위원 이제 우리 대학에도 학생들 연수나 이래 갈 때 보면 학생이 내는 거는 개인 부담, 자부담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아까 우리 같이 나오면서 139만 원 너무 싸더라. 이거 갖고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5일인데.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개인 투자, 개인 경비들도, 원래 우리 학교 갈 때만, 개인 것도 얼마 들어간다. 같이.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는 딱 출장비만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같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뭐, 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나오듯이 여기다가 개인 부담 얼마, 이렇게 딱 적어서 그거는 뭐 준다라든가 개인 부담 얼마 넣어주면 이 경비는 총 250만 원 정도 드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인지할 수 있지.

이것만 봤을 때는 의원들이 개인 경비 투자해서 가는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 쓰면 안 되는지?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 사실은 식비를 계산해 보면요. 가 갖고 일본 가서 정식 좀 하나 먹으려 하면 이게 한 끼 당 2만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못 먹어요. 밥값이 모자란다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국내 경비 밥값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비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서 뭐 아주 짬 거 안 사 먹으면 이게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이 돈 갖고 밥을 못 먹게 돼 있는데, 사실은 경비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식비 얼마 부담, 이제 그게 부담스러운 건지 여쭙보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하면, 이게 그런데 의원들 개인 부담도 있다는 걸 명시하는 거는 의회 회의할 때 그게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넣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쭙본 겁니다.

○하정용 위원 근데 이거 여행사에서 어레인지(arrange), 다 스케줄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경비하고? 어디서 했어요? 직접 했어요? 거기서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전용 버스 차 대절비가 말이야. 임차료가 이거 너무 비싸요. 545만 원. 4박 5일인데.

보통 2박 3일 하면 150만 원 정도 21인승. 그렇거든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일본 가서. 제가 직접 어레인지 해가지고 이걸 좀 저는 전체적으로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안 싸네. 아니, 안 비싸네. 안 싸네. 그래 이거 너무 이거 지금 545만 원이에요.

이런 견적 받으면 인터넷에 이거 저 대절, 일본에 검색해 보면 다 견적 나와요. 545만 이걸 진짜 아니지.

○조기여 위원 여기 가이드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하정용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 버스 하루 빌리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그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해요. 2박 3일에도 한 80만 원, 90만 원 좀 많으면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옛날에는 80만 원 주고 2박 3일을 우리가 도쿄 하코네에 뭐 다 다닐 때 그래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봐서 좀 그렇다.

○조기여 위원 이 통역비가 가이드 비용이나 보다.... 통역은 통역이고 가이드는 가이드고?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가이드 비용이.

○위원장 윤경섭 한 가지 또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도 위에

서 잠깐 이야기가 됐었는데 직원이 본인 돈으로 못 가고 의원님도 못 내주고 하면 당연히 군의 공식적인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출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의원들만, 의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의원님들만 가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당연히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어찌 보면 정리하고 군정에,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되고 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꼭 소위 말해 출장비로 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그런 규정이 있다기 보다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도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갑니다. 국외출장을 가면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보통 가면 직원들끼리 갔을 경우의 경비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의 숙박, 음식 등을 직원들에 비해 퀄리티를 높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여비와 실제 지출 간에 갭이 좀 큼니다.

그렇다고 같이 출장을 가면서 여비는 똑같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은 1만 원 짜리 밥을 먹고 직원들은 5,000원짜리 밥 먹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숙소로 가서 우리가 의원님을 또 케어해줘야 하고 의전을 해줘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숙소를 달리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의원님들의 수준에 직원들이 맞추어 같이 하다 보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기관 섭외가 사실은, 우리 최용인 주무관이 기관섭외가 진짜 힘듭니다.

하고, 기관섭외 이런 것도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경비로 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 좀 어려운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그럼 또 경비는 안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자부담금을 내고, 의원님도 자부담금을 내고 가야되고 직원들도 내고 가야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출장을 가면서 여비에 내 돈까지 추가해서 가는 것을 하려니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부담 그거는 그만 너거 자부담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의원 전체 자부담 하는 거에서 좀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아까 의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의원이 직원 거를 대줬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건 안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로 지적을 당했어요.

의장님은 직원들도 뭔가를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직원들을 데리고 가려니 직원들도 자부담을 해야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조금 부담스럽고 한데, 의원들은 조금 자부담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직원들은 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의원님들만….

○이주영 위원 전국의장단회의에 이런 걸 건의해가지고 해야되지. 이런거는 당연히 불합리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의회에는 앞으로 해외 공무국외연수에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도 없습니까?

○박정자 위원 그렇게는 못 가지.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의장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 규칙을 바꾸든지 이래야 된단니까.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우리도 건의를 했었고 행안부에서는 무조건 틀어박힌 표준안을 지금 시군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라고 꼭 뿌린 거예요.

○김미숙 위원 죄송한데 연차를 쓰시고….

○하정용 위원 일본 화장장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장을 와서 배워야 돼요. 일본은 형편없어요. 근데 가서 사실 우리가 뭐 배울 건 없어. 그 애들은 검소하게 하고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장례 문화죠. 개들은 장례 문화를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장례 문화를 사실 배우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돌아가시면 다 저걸 보냅니다. 초청장을 한 개씩 와달라고 보냅니다. 그걸 초청장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 장례식장에 못 들어가요. 식사 준비, 거마비, 올 때 갈 때 차비를 거기서 다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화장하는 거 보면, 이것도 입관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간단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들은 오늘 저 회사 나가서 일하고 와서 또 저녁에 손님 받습니다. 장례 문화가 그래요.

와도 조문도 그냥 발인할 때만 간단하게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봐서 그걸 잘 알아요.

○위원장 윤경섭 벤치마킹은 잘하는 것도 벤치마킹이지만 못하는 것도 벤치마킹 해야지.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준비된 심사의결서에 가부를 결정한 후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의결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찬성 7분, 반대가 없어 찬성이 3분의 2 이상이어서 찬성하였으므로 2025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의회에서 적극 반영하여 거창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용들을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별첨)

1. 2025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7인)

거창신보대표, 박정자

거창군민신문대표, 하정용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숙

새마을문고거창군지부회장, 변희창

거창군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 이주영

경남도립거창대학교수, 윤경섭

경남도립거창대학교수, 조기여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정담당주무관, 최용인

○의안처리

1. 2025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건 ⇒ 원안 가결

○기록

전형성

별첨 3

실제 출장수행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2025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명단	의원	11
	직원	-
	기타	-
출장기간	2025. 11. 10. ~ 2025. 11. 14.	
방문국가	일본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텐보스 정원 : 담당과장 1 -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 : 담당주임 1 - 나가사키시 의회 : 나가사키시의회 부의장 및 직원 3 - 다케오 도서관 : 관장 1, 직원 1 	
여행경비	체재비	12,489,620원
	준비금	30,520원
	항공료	3,159,200원
	차량임차료	5,450,000원
	통역비	400,000원
	물품구입	924,000원
	기타비용	-
	총 계	22,453,340원
※ 출장계획서와 경비가 상이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율 차이 : 계획 시점 1,400원, 지출 시점 1,463원 2) 준비금차이 : 계획 당시 미확정 금액으로 일괄 5,000원 적용, 실 보험료 2,260~4,250원(개인별 상이함) 3) 기관방문 기념품 구성 변경에 따른 단가상승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21,766,220원					
체재비 (A=a+b+c)		11,924,220원					
	적용환율	1\$ = 1,400원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일비 (a)	나	2호	15\$	5	11	825\$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식비 (b)	나	2호	59\$	3	11	1,947\$
		나	2호	19.4\$	1	11	213.4\$
		나	2호	38.9\$	1	11	427.9\$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숙박비 (c)	나	2호	116\$	4	11	5,104\$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준비금 (B)	지급사유: 여행자보험 가입료				금액:	30,520원
항공료 (C)		이용구간: 부산 - 후쿠오카 후쿠오카 - 부산				금액:	3,159,200원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5일 이용차량: 전용버스				금액:	5,450,000
통역비 (E)		이용내역: 4개기관 × 100,000원				금액:	400,000원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우호교류 및 특산품 홍보 물 품 명: 유기수저 · 술잔세트				금액:	924,000원
기타비용 (G)		해당없음					

별첨 4 출장 계획에 따른 현지일정 증빙자료

□ 항공권

하나투어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담당자 : 하나투어

2025 / 09 / 23

승객 정보 (Passenger Information)

- 승객 성명 (Passenger Name) : LEE/JAEWOONMR
-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9825075168663
- 예약 번호 (Booking Reference) : (BX항공)KJDYAI, (1B)IJQPSY

여정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BX 146 AIR BUSAN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BUSAN(부산)	10NOV 14:00	INTERNATIONAL TERMINAL	ECONOMY/K	01:00	OK
도착	FUKUOKA(후쿠오카)	10NOV 15:00	INTERNATIONAL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15K		운임(Fare Basis) : KP14J		(Validity) Not Valid After	24NOV25	

BX 145 AIR BUSAN

	도시/공항	일자/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상태
출발	FUKUOKA(후쿠오카)	14NOV 16:00	INTERNATIONAL	ECONOMY/K	01:05	OK
도착	BUSAN(부산)	14NOV 17:05	INTERNATIONAL TERMINAL			
경유지(Via) :		좌석(Seat Number) :		유효 기간 : Not Valid Before		
무료수하물(Baggage) : 15K		운임(Fare Basis) : KP14J		(Validity) Not Valid After	24NOV25	

항공권 정보 (Ticket Information)

- 발행일/발행처 (Issue Date/Place) : 08SEP25 / HANA TOUR SEOUL KR (17305304)
- 제한사항 (Restriction) : NON ENDS BX ONLY
- 지불수단 (FOP/Tourcode) : CASH / 25KRFUK1
- 운임계산 내역 (Fare Calculation) : PUS BX FUK Q9.00 75.68BX PUS Q9.00 75.68NUC169.36END ROE1387. 38933
- 세금/기타비용 (Tax/Fee/Charge) : 19000BP 23800SW 9400TK
※ YQ/YR/Q Code는 유류할증료 및 전쟁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드리는 말씀 (Remarks)

-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는 탑승수속/입출국/세관 통과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 여행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위/변조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항 탑승 수속 마감은 항공편 출발 1시간전이므로,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항공사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운항편의 탑승 수속은 운항 항공사에서 이루어지며, 운항사의 규정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탑승수속시의 수하물 규정이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의 무료 수하물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전좌석배정'을 완료한 경우, 항공기 출발 70분 전까지 수속하지 않으면 예약(사전 배정 좌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사정 및 썬더타임 적용 등 운항시간의 변경을 대비하여, 여정의 출국 및 귀국 탑승일 기준 72시간 전에 항공기 출발/도착 운항시간의 재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미 확인 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고객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 공지: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각 항공사의 개인정보정책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항공편 예약이 예약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 (GDS)를 통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개인정보정책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atatravelcenter.com/privacy> 혹은 해당 항공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항공편 예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저장 및 이용되고, (공동운항의 경우) 제휴사에 제공 및 위탁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대한민국 국민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리비아**를 여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를 꼭 확인하세요 (www.0404.go.kr)
여행 전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여행국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 해외에서의 긴급연락처도 받아주세요.
해외여행 중 사건·사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치하시면 영사콜센터에서 유용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2-2-3210-0404)

□ 현지차량 영수증

レシート(領収書)

内訳	日月	料金		但
バス代として	11/10	福岡空港・佐世保	¥109,000	道路代 駐車代 など
	11/11	佐世保・有田	¥109,000	
	11/12	佐世保	¥109,000	
	11/13	佐世保・長崎	¥109,000	
	11/14	佐世保・武夫・福岡・福岡空港	¥109,000	

総額	¥545,000
----	----------

上記正に領収いたします。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801호
(주) 이트래블
 代表理事 李 尙 勳



□ 현지차량 사진



□ 숙박영수증

Date: 2025 / 11 / 14

Code : 団体名 : INC-ETRAVEL 1110 PTY

[illegible]

7,828,000



ソウル特別市 中区 武橋路(ムギョロ)20 こども財団ビル(オリニジェタンビル) 801号
Tel.+82-2-733-2277 Fax.+82-2-733-2278

担当者：高橋朋子

□ 현지일정 사진 : 11. 11.(화) 하우스텐보스



□ 현지일정 사진 : 11. 12.(수) 사세보 세이부 호우세이엔



□ 현지일정 사진 : 11. 13.(목) 나가사키시의회



□ 현지일정 사진 : 11. 14.(금) 다케오 도서관



거창 · 산청 · 함양사건 관련자 배 · 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거 창 군 의 회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촉구 건의문

‘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지역과 이 나라 민주주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거창·산청·함양사건’이 국군의 위법행위라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되어 위령·추모사업 중심의 명예회복 사업은 추진해 오고 있으나, 7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이 진정으로 바라는 실질적인 국가 배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임을 전제로 소멸시효 적용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국가 책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나

정부는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배상 및 보상 문제 해결에 충분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1월 28일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되었다.

두 법안은 ‘거창·산청·함양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 책임 완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유족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여유가 없다. ‘거창·산청·함양사건’에 대한 온전한 역사적·법적 정리는 더 미루기 어려운 시대적 책무이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억울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거창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부처 협의와 재정 소요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번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유족의 고령화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신속히 심사·의결하고, 반드시 처리하여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추모사업, 생활·의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함에 있어 유족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동체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

2025년 12월 22일
거창군의회